

사회

간호사·무자격자가 건강검진 말기 위암 환자도 '정상' 판정

광주, 지난해 '의사 없는 검진' 2만3700건 ... 전국의 절반

전국적으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자격정지 의사이던 건강검진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광주 지역의 적발건수가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지역에서 무자격자가 의료인과 이면계약을 맺은 뒤 출장차량을 의료인 소유로 등록해 놓고 출장검진을 하다가 적발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순속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하거나 자격정지된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는 4만5823건

으로 2007년 456건보다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도 같은 사례가 6318건 적발되면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적발사례는 5만 605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소재 의료기관 3곳에서 사면 이면계약을 통해 무자격자 의사가 출장차량(속칭 '모찌구미')을 의료인 소유로 등록해 놓고 출장검진을 하다가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가 2만3700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물을 정해놓고 출장차량(속칭 '모찌구미')을 의료인 소유로 등록해놓고 출장 건강검진을 하는 '못 믿을 건강검진'도 내부고발로 적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

적이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A씨의 경우 승합차로 호객행위를 하는 광주 한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남편이 3개월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의사가 복부 부근을 만져만 봐도 알 수 있는 위암을 영상판독까지 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부정확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책이 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검진인력 미비'는 건강검진을 맡았던 의사가 해외로 나간 사이 간호사 등이 암 여부 판정 등 최종 검진 결과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무자격 의사가 직접 검진한 것을 비롯해 보건소 미등록 의사와 검진기사 미등록자가 검진에 참여하고, 의사가 검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모두 일컫는다.

이같은 부실한 건강검진으로 암이나 심장질환 등을 발병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서 국민 의료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들의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결과 해외에 나가 있는 데도 건강검진기관들이 최종 암 판정 등의 검진을 수행했다고 허위보고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며 "또 2차 검진 시 경우 대상자에게 전화통화한 사실만으로 검진을 마쳤다고 허위보고한 사례들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최희준기자 chae@kwangju.co.kr



관방제림 피서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수관 작업 고교생 폭우에 익사

경찰 안전수칙 준수 등 조사 ... 광주·전남 물놀이 사고도 잇따라

지난 주말·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국지성 소나기나 물놀이 등으로 인한 익사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하수관 보수공사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고등학교생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뒤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Y맨션 앞 가로 3.5m·세로 3.5m의 하수관(총 길이 2km)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고교생(17·광주 모 고교 2년)·송모(30)씨 등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김군은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북구 신안동 신안다리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송씨는 급류에 떠내려가던 중 바깥과 연결된 철제 사다리에 걸리는 바람에 무사히 구조됐다. 송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북구 우산동 Y맨션과 인접한 문흥동에 내린 비의 양은 2mm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수도장 전문업체인 광주 모 개발과 근로자 대기소 관계자를 불러 안전 수칙(내·외부 연락망 설치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낚시를 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실종되거나 숨진 사고도 있었다.

8일 새벽에는 진도군 조도면 대슬도에서 낚시를 하던 서모(49·진도군 지산면)씨가 실종됐으며, 7일 오후 8시20분께는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앞 바다에서 배를 빌려 낚시하던 제모(45·서울시 구로구)씨가 실종됐다. 또 7일 오후 3시30분께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바다에서 고모(85) 할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고 할아버지는 마을 주민과 함께 미역채취를 하다 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광주시 동구 내남동의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내남동 주민 정모(61)씨가 수영 미숙으로 익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upark@

풍암동 장대비...운림동은 땀별

광주서도 국지성 호우 지역별 편차 극심

지난 7일 오후 광주지역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다. 서구 풍암동 일대에는 1시간 동안 22mm 가 쏟아진 것을 비롯한 북구 운암동 일대에는 9mm가 내렸다. 하지만, 동구 운림동 일대에는 비가 오지 않고 땀별이 계속되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였다.

◇편차 왜? =광주시는 동서간 34.3km, 남북간 23.1km로 면적은 501.44km이다. 좁은 면적임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소나기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소나기 구름은 강한 태양열이 내리쬐면서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 12km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만나면서 형성되는데, 이때 구름 띠의 지름에 차이가 생기면서 지역별로 강우량이 달라진다.

◇편차 왜? =광주시는 동서간 34.3km, 남북간 23.1km로 면적은 501.44km이다. 좁은 면적임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소나기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소나기 구름은 강한 태양열이 내리쬐면서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 12km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만나면서 형성되는데, 이때 구름 띠의 지름에 차이가 생기면서 지역별로 강우량이 달라진다.

(AWS·Automatic Weather System)에 측정되지 않은 정도였다. 풍암동과 운림동은 직선거리로 3km~4km 가량 떨어져 있다. ◇편차 왜? =광주시는 동서간 34.3km, 남북간 23.1km로 면적은 501.44km이다. 좁은 면적임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소나기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소나기 구름은 강한 태양열이 내리쬐면서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 12km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만나면서 형성되는데, 이때 구름 띠의 지름에 차이가 생기면서 지역별로 강우량이 달라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네별로 소나기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여름철 하수도 정비 등 작업 맨 날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작가 휴가가 이번 주 만화·만평입니다.

“교수 채용 대가 돈 줬다”

전남 모 대학 前 교수 3명 “되돌려달라” 요구

지난 5월 광주의 한 대학 시간강사가 대학으로부터 교수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가운데 전남 모 대학 교수가 채용과 관련해 학교에 돈을 줬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전남 모 대학 전 교수 A씨 등 3명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96년 교수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이 학교에 6000만원 등을 전담했다. A씨 등은 당시 대학측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돈을 주고 교수로 채용됐다는 후배의 소개로 대학 이사장을 만났는데, ‘학교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다시 이사장을 만나 돈을 준 뒤 교수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해고된 A씨 등은 돈을 받은 대학 측이 최근에도 교수 채용을 대가로 강사들로부터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담한 돈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최근 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용 당시 돈을 요구했던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이 사실을 빌미로 다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나를 포함한 3명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 당시 채용했던 모든 교수 수십명 대부분이 학교에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냈다.

한편 이 대학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돈을 요구했거나 받았다는 A 교수 등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

광주천 물고기 400여마리 떼죽음

지난 7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천에서 잉어 등 물고기 4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시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나온 시·구청 공무원들은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을 당시 광주천의 용존산소량은 0.5ppm으로 평소 용

존산소량(4ppm)의 12.5% 수준이었다. 잉어의 경우 용존산소량이 2.0ppm이하로 떨어지면 살 수 없다.

광주시는 최근 지속된 폭염과 전남 내린 소나기로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뒤집히면서 광주천의 용존산소량이 떨어져 물고기가 폐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수능 불공 2011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을 100여 일 앞둔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불공을 드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돈상자' 남구청 공무원 무혐의

지난 3월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여·36·7급)씨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달 말 광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구청이 공모한 의료급여관리사로 채용시켜주는 조건으로 이모(여·53)씨로부터 골과 사골, 현금 500만원이 든 라면상자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최경호기자 squeeze@kwangju.co.kr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같은 달 21일 밤에 아파트 출입문 앞에 이씨가 놓고 간 상자를 다음날 골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이씨로부터 상자를 받은 날짜가 같은 달 11일이라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는 “경찰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출산 직후 상태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참고인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경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